

# 반복되던 행정시 '인력 빼가기' 사라질까

### 제주도-행정시 인사교류 무늬만 기준에 규칙 첫 마련 형평성 문제 완화될 듯... "동일 기준 적용 위한 장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간의 인사교류 규칙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형평성 문제 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행정시의 '인력 빼가기'와 승진을 비롯해 주거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도나 제주시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민선 7기 인사혁신으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공무원 능력발전 등을 위해 도-행정시 및 행정시 상호간의 인사교류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

일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다. 도는 규칙안을 통해 도지사는 행정시와 협의해 인사교류의 일반기준, 규모, 대상자 선정, 예외 적용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5가지 사항인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감사원, 도감사위원회 또는 각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 해 조사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파견, 장기교육 또는 휴직에서 복귀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전보 등이 제한된 경우 등에 대한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공무원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제 내용도 마련했다.

앞서 도는 2006년 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력 배치를 위해 조직을 재분배 한 바 있지만 이후 흐지부지한 상태였다. 행정시별로 2년 이상 근무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운영하는 등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도와 행정시간의 인사교류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다. 행정시의 핵심인력인 7급을 도청으로 전출하는 인력 빼가기 식의 일방통행적 전

도 관계자는 "도와 행정시 간 인사교류는 6급 이상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7급 이하만 일방전입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2017~19) 행정시별 정기인사 시마다 평균 6~8명 정도 인력을 전입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부터 행정시 7급 이하 인력의 일방전입을 최소화 하고 2016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9급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행정시 요청 도 전입(7급 이하) 인력은 2017년 하반기 5명(제주시 4, 서귀포시 1), 2018년 37명(제주시 16, 서귀포시 21), 2019년 39명(제주시 22, 서귀포시 17), 2020년 상반기 18명(제주시 8, 서귀포시 10) 등이다.

백묵탁기자 haru@ihalla.com

# "위원회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활동 막는다"

### 강성민 의원,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사진·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성민 의원은 "위원회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제주도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택 위원이 제주도의 출자기관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지만 위원 사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백묵탁기자

# 배달 드론, 날다!

### 배송 서비스 모델 발굴에 도, 정부·기업 등과 협업 어제 드론 활용 실증행사

제주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부속섬을 비롯해 산간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물류 배송 실증 사업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GS칼텍스와 협업해 드론 배송 실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등 비롯해 ETRI 및 사업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실증 행사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해안초등학교 학생들과 중산간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간식을 배달하는 데 성공했다.

간식을 실은 드론(제조사 엑스드론)은 제주시 해안동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를 출발해 0.8km 떨어진 해안초등학교 127명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8일 제주시 해안동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 간식을 실은 드론이 0.8km 떨어진 해안초등학교로 출발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S칼텍스와 함께 해안초 학생들에게 드론을 이용해 간식을 배달했다.

또 다른 드론(제조사 네온테크)은 결혼 축하 선물을 신고 중산간 지역 펜션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는 비가시권·야간·고도 비행과 같은 드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실증과 스마트 드론 기술을 활용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가파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 공적마스크 배송에 드

론을 이용하는데 이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과 해안 맹생이모자반 흐림을 드론으로 촬영해 영상 지도를 제작했다. 또 2015년 낚시 어선 돌고래 사고 시 실종자 수색에도 드론을 활용했다.

이와 함께 농지 이용 실태, 경관 보전 직할 지역, 가축 사육 시설 등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업무에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해 시간을 단축했다. 도는 앞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와 함께 물류 배송 실증을 동시에 추진해 드론 산업의 핵심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행사에 참석해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핵심 기술을 실증하는 제주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제 곧 출현하는 드론택시 실증 서비스도 제주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적극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 확대

### 행안부, 운영규정 개정 예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표창·포상이 신설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하도록 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양성평등 디딤돌 후보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양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도민, 기관 및 단체(기업)를 발굴해 시상하는 '양성평등 디딤돌상' 후보를 이날 30일까지 추천·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후원은 제주도지사 표창이며, 일반도민 및 기업·단체에게 양성평등 디딤돌상(10명), 양성평등 유공자상(5명)으로 구분해 시상할 계획이다. 추천기준은 양성평등 기반강화를 위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 강화에 기여하거나,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언론 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자,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예방, 여성·아동의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자(또는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도 양성평등정책관(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화관 4층)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태윤기자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계연의날 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가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피프, 사탕, 가리, 구취제거제, 은담, 비타민C)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백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루스  
한라체육관  
심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